



**무선 엔터테인먼트시장 진출**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일렉트로닉스(대표 김충훈 <http://www.dwe.co.kr>)는 이르면 오는 10월경 AV무선통신솔루션, 무선스피커 등 홈네트워크 관련제품을 출시하고 가정용 무선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한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캐나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빅스(ViXS)시스템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AV무선통신솔루션은 송신부와 수신부로 구성되며 프로세서, 칩세트 및 비디오 네트워크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비디오 네트워크 기술은 802.11a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표준과 고성능 비디오 스트리밍의 안정적인 무선전송을 지원한다.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최대 2개의 HD급 비디오 영상 프로그램을 동시에 무선으로 전송받아 PDP, 프로젝션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이와 함께 5.1채널 환경에서 유선의 리얼(real)스피커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스피커 등 PTP(Point-To-Point) 미디어 액세스 장비도 선보이면서 홈시어터 시장공략도 강화할 예정이다.

**메모리스틱 생산 · 판매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윤종용 <http://www.sec.co.kr>)는 소니와 삼성 브랜드로 메모리스틱을 생

산, 판매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3분기 말부터 시판할 예정이며 채용제품도 가전에 이어 휴대폰 · 디지털카메라 등에까지 늘려 나가는 동시에 이를 매개로 소니제품과의 호환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업계 거대기업인 삼성과 소니 양사가 메모리스틱의 생산과 채용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표준화경쟁이 치열한 세계 메모리저장장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소니와의 협력강화로 플래시메모리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함으로써 플래시메모리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모바일 저장 미디어 및 관련제품의 공동개발, 응용기술 공유 등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도 구니타케 소니 사장은 “삼성전자가 자체 브랜드로 메모리스틱을 제조, 판매기로함에 따라 메모리스틱을 통한 미래 네트워크 세상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모리스틱’은 세계 메모리카드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2002년 기준 IDC 집계), 올 4월 말 기준으로 4000만개 이상의 제품과 이를 지원하는 가전제품이 출시됐다.

**휴대폰용 LCD 2종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윤종용 <http://www.>



samsung.com)가 휴대폰용 TFT LCD 신제품 2종을 개발, 양산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1.8인치 듀얼제품과 2.2인치 QVGA(320×240)급 고해상도 제품이다.

삼성전자의 1.8인치 듀얼 TFT LCD는 세계 최초로 하나의 백라이트와 IC로 두개의 창을 동시에 구동, 휴대폰의 두께를 1mm 이상 줄이는 한편 무게와 배터리 소모량도 개선해 성능 향상과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창의 해상도는 96×96이며 내부창은 160×128을 지원한다.

또 고해상도 2.2인치 TFT LCD는 공정이 어려운 저온폴리(LTPS)방식을 채택하지 않고도 현재 대형 LCD에 적용돼 있는 아몰피스(비정질)기술을 휴대폰용 LCD에도 적용해 세계 최초로 QVGA급 해상도를 실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2가지 신제품에 '미반사(TMR:Transmissive with Micro-Reflective type)'라고 하는 자체기술도 적용해 야외에서도 실내처럼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기흥사업장에 위치한 TFT LCD 1, 2라인에서 중소형 TFT LCD 제품을 생산중이며 지난 7월 중소형 TFT LCD생산량이 200만대를 돌파한데 이어 LCD 매출 가

운데 10%인 중소형 비중을 연말까지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만능리모컨 겸용 키보드 일본수출

세진전자

키보드를 내장한 만능리모컨이 세계 최초로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세진전자(대표 이상영 <http://www.sejin.com>)는 가전기기의 90% 이상을 제어하는 만능리모컨에 키보드 기능을 장착한 콤브리모컨(모델명 SWP-6447ws)을 개발해 일본 수출을 시작했다.

이 콤브리모컨은 평소에는 TV·오디오·DVD플레이어 등을 제어하다가 본체를 열면 셋톱박스용 키보드로 변신한다. 세진전자는 가정 내 디지털셋톱박스 보급에 따라 TV를 이용한 웹서핑과 문자입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키보드를 내장한 리모컨제품을 개발했다.

이 콤브리모컨은 독창적인 기능을 인정받아 지난달 일본의 아파트 전문업체 L사를 통해 셋톱박스 제어용으로 6만대가 납품됐고 연말까지 300만달러 이상의 수출이 예정된 상황이다. 또 국내 셋톱박스제조업체들도 높은 관심 속에 OEM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가정 내 지능형 가전환경이 구축되면서 리모컨에도 인터넷 기반의 검색과 쇼핑·뱅킹 등에 필요한 문자입력기능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리모컨과 키보드의 결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회사 송주환 개발팀장은 “TV와 PC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리모컨에 마우스·키보드를 내장한 새로운 가정용 제어기기 포맷은 향후 가전업계에 표준사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진전자는 차량부품과 키보드를 생산하는 중견업체로서 지난해 전세계 셋톱박스용 무선키보드시장의 70%를 장악해 키보드사업에서만 연간 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 디지털TV에 주력

### — 이미지퀘스트 —

모니터업체인 이미지퀘스트가 TV업체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이미지퀘스트(대표 김홍기 <http://www.hyundaiQ.com>)는 디지털TV사업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33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 디지털TV부문을 향후 주력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 회사는 연내 42인치 튜너 내장형 고해상도 PDP TV, 50인치 PDP TV, 26인치 와이드 LCD TV를 개발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32인치 와이드 LCD TV와 TV 튜너가 내장된 50인치 PDP TV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TV사업 추진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중국 생산법인에 생산 기술 및 모니터 개발을 담당할 연구소를 설립해 모니터 품질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미지퀘스트 김홍기 사장은 "내년 상반기

까지 LCD·PDP TV의 전체 제품 라인업을 완료해 디지털TV부문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2005년까지 정보가전 독립사업체제 구축을 마칠 것"이라며 "현재 TV 전문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며 관세 및 제품 수급 개선을 위해 지역별 현지 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사업다각화가 이뤄질 경우 이 회사는 오는 2005년 모니터 매출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TV부문이 25%, 정보단말기부문이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지퀘스트는 지난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4% 줄어든 1694억원의 매출과 4억6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하이닉스에서 분사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 ● 시스코 인터넷전화 전문자격 획득

### — 인성정보 —

인성정보(대표 원종윤)는 미국 시스코시스템스의 '인터넷전화 전문자격(IP Telephony Specialization)'을 획득했다.

인성정보는 지난 6월에 IP콘택트센터(IPCC) 비즈니스를 위한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파트너 자격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에 IP텔레포니 전문자격증도 획득했다.

이 회사 텔레포니사업부장인 백승룡 상무는 "텔레포니 전문자격을 취득한 기술력을 토대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QoS(Quality of Service)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부가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인터넷전화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출용 휴대폰 7종 출시**

**팬택**

팬택(대표 이성규)은 26만컬러 듀얼LCD, 33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고기능 휴대폰 등 모두 7종(CDMA 1종·GSM 6종)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중국수출을 시작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국 휴대폰시장의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개발해온 고기능 휴대폰 7종을 수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임으로써 중국시장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팬택은 앞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신모델 15종을 중국시장에 내놓고 시장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美 스프린트PCS에 공급**

**팬택&큐리텔**

팬택&큐리텔이 미국 스프린트PCS에 매달 20만대 가량의 대규모 휴대폰을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팬택&큐리텔의 송문섭 사장은 기업설명회(IR)에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미국의 오디오 박스를 통해 스프린트PCS에 매달 20만대 가량의 휴대폰을 공급하게 됐다”며 “현재 이같은 규모의 휴대폰 공급을 위한 최종 서명 단

계만 남겨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팬택&큐리텔은 스프린트PCS에 매달 20만대씩 연간 240만대 규모의 휴대폰을 수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팬택&큐리텔은 특히 이번 계약으로 미국 양대 CDMA사업자인 버라이즌·스프린트PCS에 모두 휴대폰을 공급하게 돼 미국 휴대폰 시장의 4대 메이커로 도약하게 될 전망이다.

송 사장은 “스프린트PCS와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며 “모토라·삼성전자·LG전자·노키아 등과 함께 스프린트PCS의 주요 휴대폰 공급업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사장은 또 “미국의 양대 CDMA 사업자를 통해 휴대폰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북미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강화됐다”며 “올해 매출의 60~70%를 북미시장에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팬택&큐리텔은 그동안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가려 스프린트PCS의 휴대폰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팬택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연구개발 인력 보강과 다양한 제품개발에 힘입어 스프린트PCS로부터 휴대폰 공급 파트너로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팬택&큐리텔은 북미의 GSM 휴대폰 시장에도 진출한다. 회사측은 미국의 2대 GSM 사업자인 AT&T에 이르면 연말부터 GSM 단말기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사장은 “최근 4개월여 동안 AT&T와 함께 GSM 단말기 제품개발을 진행중”이라며 “연말이나 내년 초 본격적인 선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택&큐리텔은 올해 북미시장의 성공적인 진입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92% 늘어난



1조4,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 1기가 DDR2 세계 최초 개발

####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 <http://www.hynix.com>)가 세계 최초로 1기가비트(Gb) 더블 데이터레이트2(DDR2) SD램 개발에 성공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512Mb DDR2 SD램 개발 및 양산에서 세계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512Mb의 두배 용량인 1Gb DDR2 SD램이 개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Gb SD램 모듈은 26만쪽의 영자신문, 5000권의 단행본, 1만곡 이상의 음악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신제품에 독자개발한 회로 선폭 0.11미크론(μm)급의 '골든칩' 기술을 적용했고 양산시기는 인텔의 DDR2 지원 칩셋이 출시되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1Gb SD램을 68볼 FBGA(Fine-pitch Ball Grid Array) 패키지로 구성, 국제표준 화기구인 제텍(JEDEC) 표준을 준수했으며 최근 미국의 대형 브랜드PC업체에 컴포넌트 또는 모듈 형태로 공급돼 안정성 및 성능 검증작업을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6월 533·667MHz 속도의 512Mb DDR2 SD램에 이어 1Gb 제품 개발에도 잇따라 성공, 차세대 초고속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네트워크 사업 흡수 통합

#### 한국몰렉스

한국몰렉스(대표 정진택 <http://www.molex.co.kr>)는 별도 사업체로 운영하던 정보통신용 통합배선시스템 수입·공급업체 MPN(Molex Premise Network)을 이달부터 한국몰렉스에서 흡수, 통합운영키로 했다.

이유는 통신용 통합배선시장의 주 수요처인 인텔리전트 빌딩 건설이 지난 98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국산 통합배선시스템의 등장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자 국내에 생산기반·개발·영업력을 갖고 있는 한국몰렉스와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한국몰렉스의 정진택 사장은 통합 이후 통신용 아웃렛 제품을 포함해 100페이지 블록 등 배선 관련 제품을 개발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MPN은 지난 94년 미국 몰렉스 본사가 'MOD-TAP'란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 수출용 휴대폰 7종 출시

#### JVC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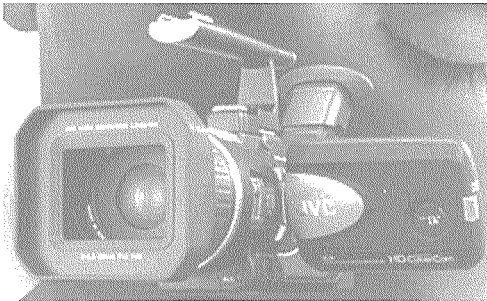
JVC코리아(대표 이데구치 요시오)는 HD모



드가 탑재된 캠코더 'GR-HD1KR'에 대한 국내 판매를 개시한다.

스튜디오에서 사용가능한 이 제품은 기존 DV방식의 기록화소수가 720×480도트보다 3배 가량 많은 1280×720도트의 고정밀 영상을 기록하며 16대9 와이드영상을 제공한다. 또 DV캠코더의 미니DV 테이프를 사용하며 DV 방식 모드로도 기록재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HD촬영을 위해 개발된 HD줌렌즈 유닛과 안정된 영상기록을 위한 손떨림보정시스템, 편리한 조작성을 위한 90도까지 회전 가능한 글립 등도 이 제품의 특징이다.



**● 세계 첫 선형압축 냉장고 개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 <http://www.lge.com>)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저소음을 실현한 선형압축방식 냉장고(모델명 리니어디오스)를 개발하는 데 성공, 이달부터 양산에 돌입해 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키로 했다.

특히 세계 가전업체들은 2~3년 후에나 리

니어냉장고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LG전자가 이보다 앞서 상용제품을 출시, 세계 냉장고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선형압축방식은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꿔 냉매를 뿜어내는 기존 압축기와 달리 선형모터의 직선운동만으로 곧바로 냉매를 분출시키기 때문에 전력소모와 기동소음이 모두 30% 정도 줄일 수 있는 핵심기술로 세계 가전업체들이 치열한 개발경쟁을 벌여왔다.

김쌍수 LG전자 부회장(DA사업부장)은 창원공장에서 가진 신제품 발표회에서 “이달부터 스페이스디오스·티타늄디오스 등에 선형압축기를 적용해 양산과 함께 국내 시판에 들어가고 내년 초에는 유럽, 내년 중반에는 미국 시장에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리니어압축기·천연냉매 등 친환경·친건강 ‘녹색기술’로 유럽·북미·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 본토기업을 추월해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리니어압축 기술을 에어컨 및 자동차용 에어컨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선형압축기 개발을 위해 지난 10년간 연인원 102명의 개발인력과 6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으며 국내외에 910여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했다. 또 이를 채용한 리니어냉장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만대의 리니어디오스를 시범적으로 출하해왔다.